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1-04 (수요일)

[오늘의 한 줄]

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·하원을 모두 탈환('블루 쓰나미')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외국인이 2.5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코스피는 장중 5,400선까지 밀렸다가 막판 반등해 +0.62%(5,683.80)로 마감. 아폴로와 블랙스톤이 나란히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아래로 내려가 AI 위험 C 조건이 새로 충족됐습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1/4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- 코스피 5,683.80 (+35.01, +0.62%). 미국 반도체 강세에 장 초반 5,8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 매도 확대에 하락 전환, 장중 5,400선까지 밀렸다가 오후에 낙폭을 줄이고 막판 상승 마감. 하루 변동 폭 400포인트.
- 코스닥 714.95 (+10.56, +1.50%). 장중 700선 아래로 밀렸다가 회복.
- 삼성전자 218,000원 (-0.68%). SK하이닉스 139만6천원 (-0.14%). 삼성전기 111만5천원 (+0.90%).
- 전력기기 3종: 효성중공업 204만9천원 (+3.96%), HD현대일렉트릭 438,500원 (-0.11%), LS일렉트릭 150,700원 (-0.53%).
- 선거 해석: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·투자 지연 우려로 반도체 중심 매도 압력이 커졌고, 반대로 친환경·2차전지(LG에너지솔루션 +5.03% 등)는 수혜 기대에 강세. 대신증권은 "선행 PER 4배 밑의 역사적 저평가 구간"이라며 5200선 전후 지지를 전망했습니다.

출처: 아주경제 마감시황 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61104155547584, 디지털데일리 https://www.ddaily.co.kr/page/view/2026110415564043594

■ 미국 중간선거 결과

- 민주당이 상·하원을 모두 탈환(AP). 상원은 7대 경합지 중 6곳 승리로 54석이 유력(연합)하며, 트럼프의 남은 임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.

출처: AP https://apnews.com/article/midterm-election-house-senate-democrats-republicans-trump-f126e12e05b579a327b98481c0ae2226, 연합뉴스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04098153071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- 코스피: 외국인 -2조5,020억원(이틀 연속 조 단위 매도), 기관 +1조136억원(연기금등 +740억, 4거래일 연속 매수), 개인 +1조1,442억원, 기타법인 +3,493억원.
- 코스닥: 기관 +626억원, 외국인 -9억원, 개인 -511억원.
- 누적(9/23부터 27거래일,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, 근사치):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2.9조원, 코스닥 약 1.21조원. [계산]

- ※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·범위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(위 표는 15:35 기준).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04133300008

■ 미국 시장 (11/3 선거일 마감)

- 반등: 나스닥 25,372.01 (+0.83%), S&P500 7,568.92 (+0.36%), 반도체지수(SOX) 10,600.40 (+2.63%)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습니다.
- 개별: 아이온큐 29.99 (+6.46%), 코어위브 53.74 (+7.16%), 오라클 126.19 (+5.85%), GE버노바 918.20 (+6.49%), MS 520.99 (+2.74%), 엔비디아 206.69 (+2.29%), 메타 621.03 (+2.36%), 아마존 250.69 (+2.06%), 팔란티어 175.40 (-1.65%), 블루아울 10.33 (-2.73%).
- 사모대출 3사는 시장 반등에도 하락: 아폴로 113.55 (-4.95%), KKR 95.99 (-2.06%), 블랙스톤 118.19 (-1.62%).
- 오늘 밤(진행 중): 나스닥100 선물 28,564 부근 (11/3 정산 28,305.75 대비 +0.9%, 밤 9시경 수집 값이며 확정 아님).
출처: 야후 파이낸스 종가 데이터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- 미 국채(11/3 확정): 3개월물 4.21%, 2년물 4.61%, 10년물 4.95%(+0.04%p), 30년물 5.32%. 2년-10년 금리차 +0.34%p. [계산] 최근 입찰은 모두 평이.
- 한국 국고채 3년 3.710% (-0.034%p, 오후 4시 15분). 일본 국채 30년 3.886% (+0.31%, 11/4).
- 원화: 1,338.8원 (전일 1,341원 대비 소폭 강세).
- 원유: 화요일 브렌트는 약 4주 만의 최저 103.60달러, WTI 96.09달러로 마감(종전 협상 기대). 수요일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과 미 원유 재고 감소에 브렌트 104.42달러(+0.8%), WTI 96.59달러(+0.5%)로 반등 중(진행 중 값).
- 금 온스당 4,051.7달러 (진행 중 값).
- 미국 항공유·경유(EIA 현물): 최신 확정값은 여전히 10/27 - 항공유 갤런당 4.444달러, 경유 4.687달러. 10/28 이후 값은 아직 미게시.
출처: 아랍뉴스(로이터) https://www.arabnews.com/energy/oil-rises-on-iran-war-uncertainty-after-trumps-republicans-face-election-rout-3009710,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, 네이버증권, 인베스팅닷컴 https://www.investing.com/rates-bonds/japan-30-year-bond-yield-historical-data

■ AI 가격 신호 3종 (11/3 미국 마감 기준)

왜 보는가: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'빌려 쓰는 쪽'과 '반도체'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.
1. 반도체 대 지수 괴리: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(SOX) -19.80%, 나스닥 -8.07%. 괴리 -11.73%p로 전날(-13.18%p)보다 다소 좁혀졌습니다(반도체 반등). [계산]

2. 빅4 대 취약 사업자: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(MS·아마존·메타·구글) 평균 -16.61% (MS -4.1%, 아마존 -11.7%, 메타 -20.1%, 구글 -30.4%), 취약 3사(오라클·코어위브·블루아울) 평균 -42.87% (오라클 -49.1%, 코어위브 -61.1%, 블루아울 -18.4%). [계산]
3. 나스닥 고점 대비 -8.07% (전날 -8.82%). [계산]
- 참고: 코스피의 최근 고점(7,080.92) 대비 낙폭은 -19.7%로 약세장 진입선(-20%) 바로 위입니다. [계산]

[판단]

- 기조: '위험 회피' 유지. 지수는 반등했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조 단위로 팔고 기관(연기금 포함)과 개인이 받아내는 구도라 불안합니다.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AI 데이터센터 규제·허가 지연 리스크가 새 변수로 들어왔고, C 조건까지 충족돼 위험 판정 가능 범위가 4~5단계로 올랐습니다.
- 판단이 바뀌는 조건: (1) SOX-나스닥 20일 괴리의 -5%p 이내 축소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, (2) AI 자금조달 철회 확산 중단과 오라클·메타 대형 채권 발행의 순조로운 소화, (3) 사모대출 3사 주가의 -20%선 회복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683.80 아래일 것" - T+1(11/5, 목)과 T+5(11/11, 수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[복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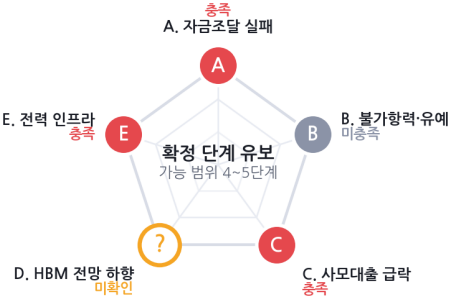
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1/3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648.79 아래일 것" (T+1, 11/4 검증) → 실제 종가 5,683.80. 빗나감.
- 10/28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6,012.44 아래일 것" (T+5, 11/4 검증) → 실제 종가 5,683.80. 적중.
- 해석: 어제의 '하락' 판단은 장중 5,400선까지 밀렸지만 막판 반등으로 종가 기준 빗나갔습니다. 검증 완료 17건 중 적중은 7건이며,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둡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
AI 위험 오각형 신호등

2026-11-04 (수) 기준 · 충족 3 · 미충족 1 · 미확인 1
C 신규 충족: APO·BX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



충족 · 미충족 · 미확인: 판정 보류
미확인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판정을 보류한 항목입니다
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
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충족(유지) - 데이터센터 IPO 5건 철회·연기(IFR 10/24-30호), 앤트로픽 연계 텍사스 데이터센터 150억 달러 대출 채권 매각 보류(10/29 블룸버그). 오라클·알파벳·메타의 대형 채권 발행은 실패가 아니라 시험대입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의 불가항력 선언·지급유예 (최근 30일): 미충족 - 창구 안의 신규 사례가 없습니다(9/24 오라클 통지는 30일 밖).
- C. 사모대출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충족 - 오늘 신규. 반등일에도 아폴로 -4.95%(-20.9%), 블랙스톤 -1.62%(-20.8%)로 2사가 기준 아래로 내려왔고 KKR은 -16.7%입니다.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 전망 하향 공시: 미확인 - 회사 공시 기준의 하향은 없습니다.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른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시 수요 전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합니다.
- E. 전력 인프라 4종 중 2종 이상이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(유지) - HD현대일렉트릭 -69.1%, 효성중공업 -55.5%, LS일렉트릭 -52.7%, GE버노바 -21.8%. [계산]
- 종합: 충족 3개(A, C, E)로 매핑상 4단계지만 D 미확인으로 확정은 유보합니다. 가능 범위 4~5단계(어제 3~4단계). D 확정 시 미충족이면 4단계, 충족이면 5단계입니다.

출처: IFR https://www.ifre.com/bonds/2502504/coreweave-rout-freezes-data-centre-financing, 블룸버그 로 https://news.bloomberglaw.com/capital-markets/banks-shelve-bond-sale-for-anthropic-tied-texas-data-center, 테크놀로지.org https://www.technology.org/2026/11/04/oracle-alphabet-meta-bond-markets-ai-data-centers-funding/

이 기록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